고은 불교대하소설

새로운 전생(轉生)

과연 불이와 합두의 기괴한 애욕, 아니 처절한 애욕은 그들이 기억이나 의식이하의 무의식으로 그리워 하다가 만나는 순간의 그 뜻밖의 불덩어리로만 그치지 않았다.

누가 애욕에 끝이 없다하였는가. 적어도 그들 아귀계의 업장이 다 마쳐지는 때에 이르러 애욕은 차라리 그들의 마지막 잔치였다. 아니 그들이 아귀계에서 떠나 다른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의 장엄한 전생(轉生)의

〈60〉

승길 수 없는 축전(祝典)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치 인간계에서 사람이 죽은 뒤 그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나 추도식을 베풀어 길이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불이와 합두는 아직 아귀계를 영영 떠나버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하나의 불덩어리로 허공을 치솟아 올라갔으므로 이미 불만은 아귀계를 벗어났으나 그 불덩어리의 밑부분은 여전히 아귀계에 속해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불이 하나가 된 찬란하기까지한 불덩어리의 길이는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이어줄 만큼 길었던 것이다.

어디선가 다음과 같은 그윽하기까지한 노래가 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돌아다보아도 정작 노래하는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이나 어느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이 사실에 대하여 지혜와 어리석음이 판가름난다. 노래는 노래하는 주인공도 없이 청년 노래였다.

두 이치 두 뜻을 거두니
쓰임새 자유로움을 얻고
삶 길을 빼앗은 뒤로
빛을 놓는 마음 빛깔 그윽하구나
(二理二義收
用得自由
奪下生機後
放光心色幽)

이 노래는 아무래도 불이 합두와 관련된 성 부스다.

불덩어리의 맨 위쪽은 수미산 산정이 구름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바다위의 허공까지 올라가 있었다.

동쪽 승신주(勝身洲) 서쪽 구타니주(瞿陀尼洲) 북쪽 구로주(俱盧洲) 그리고 인간계가 이끌어가는 중생계인 남쪽 섬부주(贍部洲)에서 살고 있는 영적(靈的)인 중생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불덩어리 상반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있으므로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다가 바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불덩어리를 보게되었을 때 그와 함께 그들도 서로 볼 수 있는 불덩어리에서 영적인 집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무엇을 본다는 것은 어디에 도달한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다른 세계에서 뻗은 시선들이 불덩어리의 허공에 모였을 때의 그 시선들의 만남이야말로 또하나의 경이로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세계에는 굳이 시인이 있을 까닭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의 운행이나 일 자체가 이미 시적인 황홀경을 극적으로 자아내기 때문이다.

고려의 시인 임춘이 정치적으로 불운한 삶을 살면서 한끼 밥도 얻어먹기 어려웠던 아귀계와 가까운 사실은 그대로 그 후신인 불이의 아귀계에서 더욱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는 합두라는 대상과의 일치로 된 애욕에 의해서 한편의 시를 온세상에 쓴 셈이었다. 시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시인이 있어야 할 까닭이 또한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이미 불이 합두가 이룬 그 애욕의 절정에서 불타오르는 그 엄청난 우주적 불덩어리의 사건이야말로 수미산의 여러 세계에까지 소문이 전해질 만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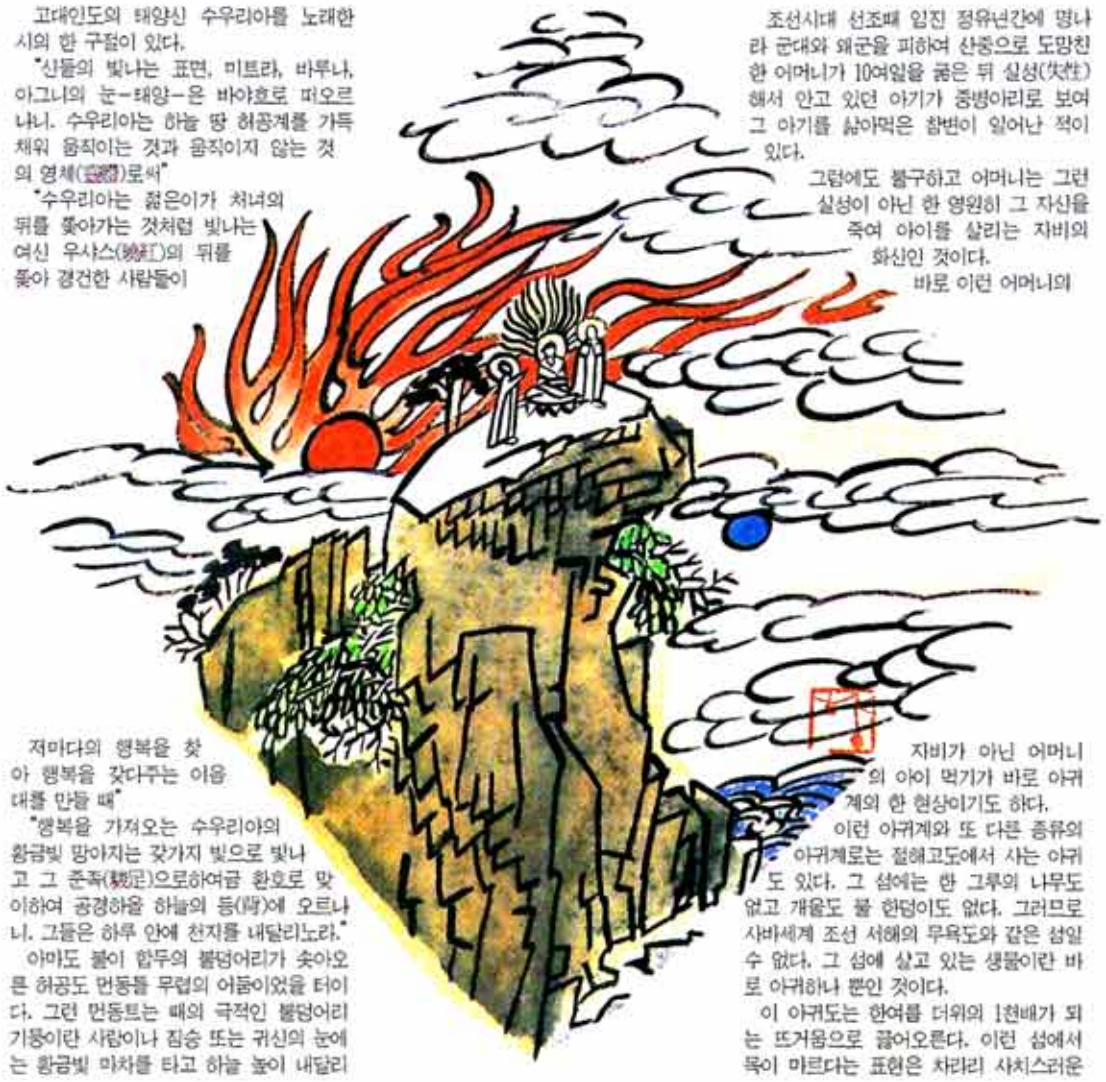
그것은 우주 속의 허공 어느 곳도 다치지 않고 오로지 불덩어리 자체만을 하나의 맹렬한 생명체처럼 솟아오르도록 불의 의지를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 불은 지극히 아름다웠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가는 것을 온통 불태워버리고 말 터이지만 거기에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는 쪽에서 바라본다면 그 이상의 찬란한 아름다움의 장관(壯觀)은 없을지도 모른다.

세계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존재의 총체(總體)를 뜻하고 있다. 그것을 자세히 따지노라면 세(世)란 시간이고 계(界)란 공간이다. 우주의 우(宇)는 공간이고 주(宙)는 시간이다.

고대인도의 태양신 수우리아를 노래한 시의 한 구절이 있다.

"산들의 빛나는 표면, 미트라, 바루나, 아그니의 눈—태양—은 바야흐로 떠오르나니. 수우리아는 하늘 땅 허공계를 가득 채워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의 영혼(靈魂)로써"

"수우리아는 젊은이가 처녀의 뒤를 좇아가는 것처럼 빛나는 여신 우샤스(曉紅)의 뒤를 좇아 경건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 행복을 갖다주는 이음대를 만들 때"

"행복을 가져오는 수우리아의 황금빛 망아지는 갖가지 빛으로 빛나고 그 준족(駿足)으로하여금 환호로 맞이하여 공경하을 하늘의 등(背)에 오르나니. 그들은 하루 안에 천지를 내달리노라."

아마도 불이 합두의 불덩어리가 솟아오른 허공도 먼동틀 무렵의 어둠이었을 터이다. 그런 먼동트는 때의 극적인 불덩어리 기둥이란 사람이나 짐승 또는 귀신의 눈에는 황금빛 마차를 타고 하늘 높이 내달리는 광경이어서 '리그베다'가 묘사하는 '황금태아(胚兒)의 노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불덩어리의 상반신이 누리는 영광과는 달리 그 하반신의 뿌리는 아직 아귀계를 이륙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불이 합두의 업장이 아귀업으로부터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귀계는 수많은 아귀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는 특히 합두의 어떤 아귀업 때문인지 색다른 세계에 그 불덩어리 밑부분이 닿아있어서 산 목숨이 타는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다.

그곳은 젊은 여자 아귀가 매일 낮과 밤 2회에 걸쳐 다섯명씩의 아기를 낳는다. 그 아기들을 낳자마자 아기를 낳은 어미가 먹어버리는 것이다. 그래도 배가 고파서 "배고파라!"를 연발하며 빨리 다음 아기를 낳고 싶다고 악을 쓰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선조때 임진 정유년간에 명나라 군대와 왜군을 피하여 산중으로 도망친 한 어머니가 10여일을 굶은 뒤 실성(失性)해서 안고 있던 아기가 중병이라로 보여 그 아기를 삶아먹은 참변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런 실성이 아닌 한 영원히 그 자신을 죽여 아이를 살리는 자비의 화신인 것이다.

바로 이런 어머니의 지비가 아닌 어머니의 아이 먹기가 바로 아귀계의 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아귀계와 또 다른 종류의 아귀계로는 절해고도에서 사는 아귀도 있다. 그 섬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고 개울도 물 한덩이도 없다. 그러므로 사바세계 조선 서해의 무욕도와 같은 섬일 수 없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생물이란 바로 아귀하나 뿐인 것이다.

이 아귀도는 한여름 더위의 1천배가 되는 뜨거움으로 끓어오른다. 이런 섬에서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 차라리 사치스러운 것이다.

기껏해야 이른 아침 부지런을 떨어서 이슬 몇방울을 받아먹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 아귀도의 고통에 떨어지기 전의 세상에서 불쌍한 등짐장수나 행상인들 속에 물품을 사취한 인간이 이런 업보를 받게 되어 아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어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야 할 시원한 나무그늘을 없애거나 짐승들이 살 숲을 없앤 인간도 바로 아귀계에 떨어진다.

이 나무 없앤 아귀는 나무 줄기 속에서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처럼 그 안에 갇혀서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 자유없는 벌을 받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똥과 오줌 콧물 고름 피 그리고 더러운 수채구멍의 물만 먹는 아귀도 있거니와 이들은 그나마 다른 아귀보다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배는 임신10개월 이상으로 큰데 입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아무것도 입안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의 아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아귀도 있다.

대체로 아귀도 이처럼 구차하게나마 먹는 아귀가 있는 반면 무재(無財)아귀는 전혀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아귀이다. 억지로 먹어보았자 먹은 것이 바로 사나운 불길이 되어 아귀의 내장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소재(小財)아귀는 아주 작은 구토물 따위를 맛볼 수 있고 다재(多財)아귀만이 상대적으로 천상계의 음식까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다재아귀도 언제나 배불리 먹고도 배가 고픈 고통이 따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족(自足)과 감사를 모르는 업장이 이런 다재아귀로 태어나게 만들거니와 불이와 합두는 이 무재 소재 다재의 아귀계를 다 치루는 동안을 그들의 공부로 삼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사실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노릇이었다.

아마도 이같은 구도자로서의 비장한 본분을 잃지 않은데서 그들의 애욕까지도 진리에의 한 사건으로 발전함으로써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수미산에 성큼 다가가는 불덩어리의 애욕을 성취한 것인지 모른다.

이제 불이 합두는 아귀계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 조향숙

> 어머니의 '아이 먹기'는 아귀계의 한 현상이다. 불이 합두가 無財 小財 多財아귀를 공부삼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음은 거의 기적이었다 그들은 애욕까지도 진리의 사건으로 발전시켜 아귀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구도자로서의 비장한 본분을 잃지않고 아귀계를 다 치루어낸 불이 · 합두는 이제 수미산에 성큼 다가가는…

"암 · 중풍 · 성인병 · 부인병 · 신경통 · 관절염 · 당뇨병 · 고혈압 ·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쑥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쑥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원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쑥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요!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염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쑥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음경락을 북돋우는 경락중 배꼽, 단전, 중완혈에 쑥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락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작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와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염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즉 쑥뜸은 쑥을 태울 때 생기는 쑥연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쑥뜸에서는 쑥연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염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쑥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참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변비,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월경,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폐 ·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정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태균살, 피부비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바라밀쑥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약쑥의 생명력으로 질병치료와 미료한 방법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한약제와 죽통과 생면주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쑥뜸기를 장 발명

약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쑥연기스와 장면침대의 약효성분이 합치되어 쑥뜸기의 작용으로 3군데 혈자리 경혈점으로 세기않고 스며들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염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맺히는 쑥연기스는 항암, 항균, 항독작용을 하는 인디레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쑥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명약을 얻을 수 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경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 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 쑥뜸도구함에 반영구적
3) 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 바라밀쑥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약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0년간 불교건강법 및 자연건강법을 연구 · 수련
• 다년간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암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작은 질병에서 큰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질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쑥뜸기

● 사찰에서 요청시 수희장회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께서 직접 보급하시고자 하면 본회에서 일차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겠습니다
(보급후 비로 불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백색 공단천위에 100% 경면주사로 제작된 금강경 신탑다라니(규격:60cm×160cm)의 엄청난 위신력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극락왕생하도록 덮어주던 탑다라니를 영적인 기를 발하도록 100% 경면주사로 만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깔고 덮는다면 살아 극락을 찾고 일체 재해를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시도된 탑다라니의 사용이 실로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데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사업의 운세가 호운으로 바뀌고, 아픈 사람이 저절로 병이 낫고, 수험생이 집중력이 생기고 실수를 하지 않아 거의다 합격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운기가 좋은 운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증예, 바라밀 쑥뜸 건강치료요법 책자 참조)
현재 이러한 영험력을 경험한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많은 신도들이 식구수대로 다투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바라밀 쑥뜸 뜰 때 이러한 영험력이 합쳐져 질병이 빠르게 완치될 수 있도록 쑥뜸기 구입시 금강경 신탑다라니 1폭씩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 (051) 864-3740

■ 서울 · 경기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 (0335) 34-9490, 39-1906
/ 아간 : (0342) 706-3060